

한국전력공사

대전 엑스포 전기에너지관 개관 에너토피아의 세계 화려하게 펼쳐져

대전 엑스포 상설전시구역내에 자리잡은 전기에너지관이 7월 30일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에너토피아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기에너지관의 첫 관람장소인 전기정원에서 있는 이날 개관식에서李宗勳사장은 식사를 통해 “전기 에너지관은 우리가 나가야 할 에너토피아의 방향을 가지적으로 보여준은 물론 전력기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운영요원들은 진정한 봉사정신을 갖고 맡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宗勳사장은 이어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및明위원장과 상공자원부 金泰坤차관보와 함께 전기정원 구름다리에서 개관기념 테이프를 자른 다음 鄭元濬관장의 안내로 전기에너지관 내부를 돌아봤다.

李宗勳사장은 프리쇼룸에서 한전의 24시를 담은 뮤직비디오를 본 다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70mm대형 입체영화가 상영되는 영상관에서 에너토피아를 주제로 한 입체영화를 12분동안 관람하고 이어 빛의 바다로 레이저 터널을 지나 전시관을 차례대로 돌아보며 현장 근무직원들을 격려했다.

한전 전기에너지관은 대전세계박람회장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3400여평의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최고높이 35m로서 약 3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다.

한전기공

삼천포사업소 무재해목표 5배달성 노동부장관 무재해금탑 수상

한전기공(주)의 삼천포사업소가 무재해목표 5배를 달성, 영예의 무재해금탑 수상 행사가 7월 29일 삼천포화력본부 강당에서 서석천사장을 비롯해 황영길소장의 전직원 그리고 한전의 삼천포화력본부장과 제1·2발전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무재해목표 5배달성장과

무재해금탑 전달식이 먼저 있었다. 이어 유공직원 표창, 포상금 수여, 사장 격려사, 무재해 결의문 채택, 안전구호 제창순으로 행사를 가졌다.

한전기공(주)의 徐錫天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삼천포사업소의 무재해목표 5배달성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한가족정신’의 소산임과 아울러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달성의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한 값진 결과라고 치하했다.

또 徐사장은 홍익인간 사상에 뿌리를 둔 무재해운동은 철두철미한 인간존중의 바탕 위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가족주의정신’으로 모두의 정겨운 마음의 고리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지난 88년 9월 6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삼천포사업소는 90년 1월 7일 무재해목표 1배달성과 함께 만 4년 6개월간 완전 무재해를 기록, 93년 2월 26일자로 무재해목표 5배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이번엔 노동부장관의 무재해 금탑과 달성장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주) 유 공

潤滑基油事業에 새로이 進出 1천억 투입 95년 완공 예정

油公은 윤활유의 제조원료인 潤滑基油사업에 새로 진출한다. 美國의 모빌社와 기술제휴로 오는 95년말 완공을 목표로 日産 3천4백배럴 규모의 潤滑基油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油公은 현재 潤滑基油공장을 설계중이며 빠르면 8월말께 모빌社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94년 중반 완공목표로 日産 5천4백배럴의 潤滑基油공장을 건설기로 했으나 최근 투자계획을 변경, 생산규모를 줄이는 한편 완공일자도 늦추기로 결정했다.

총 1천억원을 투입해 蔚山콤플렉스에 건설될 이번 潤滑基油공장이 완공되면 油公은 2단계 사업으로 日産 2천배럴규모의 또다른 潤滑基油공장을 96년말 완공목표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油公은 그동안 潤滑基油를 中國등지에서 수입해 사용해 왔으나 최근 물량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처럼 자체 공장건설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내 潤滑基油 설비는 雙龍精油가 日産 7천배럴, 現代精油가 1천배럴씩 갖추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

월성 2·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지원 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7월 2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월성 2·3·4호기 현장설계 및 기술지원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 용역은 계약금액 64억원, 계약기간이 93년 7월 3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6년간으로 월성 2·3·4호기 종합설계 엔지니어링 업무 이외의 발전소 부대설비 설계와 시공기술 및 관리, 인허가, 시운전 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자재 공장제작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용역의 수주로 이미 수행중인 월성 2·3·4호기 종합설계 용역과 더불어 앞으로 건설예정인 월성 5·6호기의 중수로 기술자립 및 주도적인 업무수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준위폐기물 지하처분시설 설계요건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용역수주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7월 하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지명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저준위 폐기물 지하처분시설의 설계요건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용역을 수주하였다.

계약금액 1억1천5백만원, 계약기간 5개월(93년 7월 23일~12월 22일)인 이 용역은 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의 기본설계 추진에 대비 기본설계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확보후 발주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용역수주의 기반구축과 경쟁력 우위확보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목분야 시공감리 전문회사 등록

한국전력기술(주)는 경영목표인 사업다각화를 통한 종합 기술용역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6월 초순 감리전문회사 중 시공감리(토목분야) 전문회사로 건설부에 등록을 신청, 7월 14일부로 등록번호 제2-54호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한국전력기술(주)는 발전플랜트 이외의 일반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단위별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

목공사,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유독성 유기폐기물 완전분해 水處理用 태양반응기 개발

염화페닐류 염화에틸렌 다이옥신 벤진류등 유독성 유기폐기물을 완전분해할 수 있는 水處理用 태양반응기가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에너지용융연구팀의 李泰奎박사는 과거처 특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90년부터 유독성 폐기물처리용 태양반응기 개발연구의 수행에 따라 최근 친환경 기술인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光化學反應 水處理 태양반응기 개발에 성공,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기본원리는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자외선 가시광선 파장영역의 光에너지를 이용해 광화학반응을 유발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반도체 광촉매와 함께 태양광에너지만을 활용해 섭씨 20~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유독성 유기물질의 2차 오염없이 완전분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산업폐수 지하수등의 수용액상에 오염되어 있는 유독성폐기물을 분해할 경우 활성탄을 사용한 흡착 또는 기포제거방법과 같은 단순한 오염을 이동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의 脫着處理 또는 燃燒處理등 2차공정이 요구되는 기포제거방법의 경우 오염물질을 단순히 기체상태로 배출시킨다는 오염대상의 이동공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생물학적 처리방법도 기술적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폐수나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성분이나 반응 2차 생성물 등이 미생물의 생명에 치명적일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개발한 이 수처리용 태양반응기는 하루 처리용량 약 5백톤 규모의 중형시스템으로 연구소내 시범동산에 설치 완료됐으며 성능을 관찰한 다음 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美國은 오는 97년 실용화를 목표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獨逸, 日本, 이태리, 호주, 스위스, 스페인등에서도 강력하게 수행되고 있다.

한국중공업(주)

세계최대 淡水 및 發電플랜드 수출
총공사규모 10억달러 상당

한국중공업(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 최대 규모인 초 대형 淡水 및 發電플랜트를 수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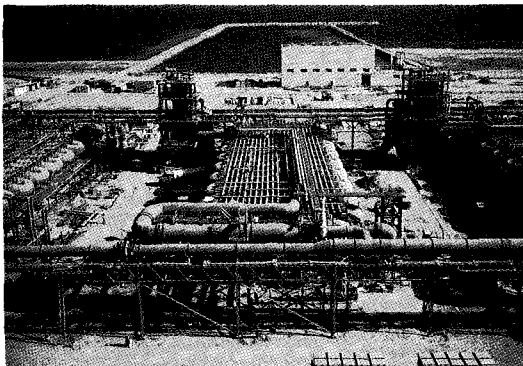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쇼아이바 (SHOAIBA PH2 POWER & DESALINATION PLANT) 프로젝트 입찰에서 日本의 미쓰비시, 히타치, 프랑스의 알스 톰社등 세계 유수의 6개 회사와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저 응찰자로 선정됨으로써 이들 플랜트를 수출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日産 1억갤론 규모로 세계 최대의 淡水設備이며 50만KW급 스팀터빈 발전설비로서 淡水設備는 韓重이 단독으로 美貨 4억5천만달러, 發電設備는 韓重과 美國의 벡텔社, 스웨덴 ABB社가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5억달러에 각각 입찰한 결과 최저응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반도 서남쪽 紅海 연안 젓다(JEDDA) 근처에 건설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0월경 착공 예정이며, 건설공기 55개월만인 9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韓重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에 淡水設備를 제작 수출한 바 있는데 이들 공장의 성능이 우수해 사우디 발주처측으로부터 韓重에 별도로 입찰참여를 요청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중공업은 지난 15년간 담수설비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완전 국산화한 품목으로 설계는 물론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등 일괄 TURN-KEY방식으로 수행예정이며 이 부분에서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사우디 아사르지역에 준공, 현재 가동중인 담수화공장〉

호남정유(주)

환경시설에 본격 투자
내년까지 총 6000억원 들여

湖南精油(株)는 대기 수질 토양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선다.

최근 湖南精油에 따르면 우선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6천억원을 들여 탈황시설을 비롯한 黃 회수시설, 활성탄여과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소각로 폐기물 매립장등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大林엔지니어링과 총 2억4천만원에 이르는 환경진단 용역계약을 체결, 여천 정유공장 및 仁川저유소에 대한 빗물 폐수 토양 지하수분야등에 환경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진단에는 앞으로 6개월동안 40여명의 환경진단 전문 인력과 외국의 특수장비등이 투입돼 湖南精油의 전공장과 仁川저유소 지역의 대대적인 종합환경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주)

네팔·요르단에서 발주한
기술 용역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주)는 네팔과 요르단에서 각각 발주된 2개 기술 용역사업을 최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주)는 네팔 상수도공사가 발주한 상수도 시설 건설 개선사업을 1백만달러에 수주, 내년 8월까지 상수도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상세설계, 운용개선 프로그램 입안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이번 용역수주는 미국의 블랙 비치社, 노르웨이의 노르컨설트社등 6개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와 경쟁하여 따낸 것이다.

그리고 요르단 수도국이 발주한 하수처리장 시공감리 사업을 10억1천4백만원에 수주, 자사로서는 처음으로 요르단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95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관리를 맡게 된다.

포항종합제철(주)

전동차용 스테인레스 고장력鋼板 개발 연간 130억원 수입대체 효과 기대

포항종합제철(주)는 자체기술로 전동차용 스테인레스 고장력 鋼板을 개발,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90년부터 5억원을 투입, 전동차의 내·외장재로 쓰이는 고장력 스테인레스 냉연강판(STS 301L)을 개발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가 한국공업규격(KS)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종합제철은 국내 최대 철도 차량제작사인 大宇중공업과 오는 9월부터 3년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선 4/4분기용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과천선용 1천만톤을 공급기로 했다.

이번 고장력강판개발로 인해 수입대체 효과는 연간 1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 업체에 수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스테인레스 고장력강판을 사용해 전동차를 제작할 경우 차량중량을 20%정도 줄일 수 있으며 내화성과 내식성이 뛰어난 날 뿐만 아니라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흡수식 냉난방기 양산에 나서 연간 3백대 규모의 생산능력 갖추

현대중공업(주)는 최근 차세대 공조설비로 꼽히는 흡수식 냉난방기의 양산에 나서 기존업체들과 치열한 판매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중순 울산공장내에 연간 3백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흡수식냉난방기 전용라인을 6월말부터 가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지난해 2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기술제휴를 한 이래, 주몽생산체제로 계열사 물량을 주로 공급해 왔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은 대량 생산체제에 맞춰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대리점망을 설치,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반해 금성산전은 컴퓨터기능이 내장된 흡수식 냉난방기를 개발, 제품차별화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주요 대도시에 구축된 영업소 외에도 추가로 대리점망 설치를 계획하는 등 영업을 강화기로 했다.

흡수식 냉난방기는 가스나 기름을 동력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CFC대신 물을 냉매로 사용,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차세대 공조설비로 공해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정유(주)

새 엔진오일「드레곤SH」 설명회 자체기술개발 최고급 가솔린엔진오일

쌍용정유(주)는 지난 7월 하순 서울 힐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대리점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400여명을 초청, 자체개발한 최첨단 가솔린 엔진오일 「드레곤SH」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선보인 「드레곤SH」 윤활유는 지난해 3월부터 6억 원을 투입, 자체기술로 개발한 최고급 가솔린 엔진오일로 최근 美國 석유협회(API)와 日本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규격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윤활유는 유황질소 방향족 물질등이 거의없어 저공해 제품일 뿐만 아니라 산화방지제가 첨가돼 엔진오일 수명도 연장됐다.

또 드레곤SH는 연료소모를 기존제품에 비해 2.7%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유동점 강화제가 첨가돼 엔진수명 연장과 출력향상 및 저온에서도 시동이 잘 걸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새 엔진오일 드레곤SH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시설 재검사 신청방법 개선 우편엽서 이용 방식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LPG사용시설의 정기적 재검사 신청방법을 우편엽서 이용방식으로 개선했다.

현재까지는 LPG사용신고 시설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 불합격의 경우 그 사유 및 재검사 신청을 촉구하는 불합격 통지서를 검사후 현장에서 발부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를 변경, 지난 7월 1일부로 신청서를 일반우편물로 우송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엽서양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와 수신자 주소 및 점검내용 기록양식이 인쇄된 우편엽서에 불합격 사유를 기재,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발부하면 불합격 사항을 개선조치한 후의 재검사 신청을 엽서로 다시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원격제어 운전·炭質檢査 자동화 추진 탄광自動化시스템 연구 용역결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탄광의 지구노력 방향제시를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 「탄광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연구 및 개발표준설계」 연구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원연구소는 연구대상으로 자동화 효과가 큰 분야의 시스템과 (주)경동 상덕광업소의 자동화 기본설계 및 추진방안에 대해 지난 92년 7월~93년 6월까지 11개월간 연구하여 그 최종결과를 제출했다.

탄광자동화 시스템 연구결과 내용으로는 기계·전기시설·공기압축기·양수기·선풍기등의 원격제어 및 권양시설·기관차운전·벨트 콘베어 운반의 자동화, 환경사 채탄법의 적용과 신채탄법의 확대적용, Jumbo Drill Side Dump Loader등에 의한 기계화 갱도굴진과 가측지보에 의한 갱도의 유지·보수 각 계통의 원격 감시 제어운전과 탄질검사의 자동화 등이다.

이 연구의 활용은 탄광 자동화시스템의 현장적용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을 비롯,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의한 생산원가 및 인력절감, 경영합리화 달성 및 석탄생산 적정규모 실현, 부존자원의 합리적 개발도도, 장기가행 가능탄광에 연차적 확대보급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航空機엔진 터빈블레이드제조 응용 單結晶응고기술 개발

항공기 엔진의 터빈블레이드 제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초내열합금의 單結晶 응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내열재료실 金鶴敏박사팀이 지난 7월 과거 특장연구개발사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 및 산업용가스터빈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터빈블레이드 제조용 초내열합금의 단결정 응고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단결정 응고기술은 최근에 개발돼 고성능 항공기엔진의 터빈블레이드 제조에 응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기술의 대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술은 고진공상태에서 섭씨 1천5백~1천6백도의 높은 온도로 금속을 녹인 후 특수한 방법으로 1개의 결정립만을 성장시켜 제품을 1개의 결정으로 제조해 내는 것이다.

원자력 공인검사기관 지정 原子力검사업무 이원화 운영키로

原子力の 검사업무가 법정규제검사와 공인검사로 이원화돼 안전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지난 7월 중순 과거처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원자력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원자력 압력계통의 모든 안전핀목에 대한 제작 설치 운영과정에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는 공인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의 검사업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법정규제검사와 한국기계연구원의 공인검사로 분리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원자력공인검사사업단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주)

국내 처음 개발된 無公害遲効性비료 파이릿플랜트 건설사업 수행

三星엔지니어링(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무공해 遲効性비료의 파이릿플랜트 사업을 맡게 되었다.

지난 8월 중순 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이전업체인 남해화학이 발주한 시간당 25 Kg의 생산능력을 갖는 무공해 遲効性비료의 파이릿플랜트 건설사업을 6억원에 수주했다.

전남 여수 여천에 있는 남해화학 공장내에 세워질 이 파이릿플랜트는 94년 1월에 완공돼 그해 2월~4월까지 2개월동안 시운전을 거치게 된다.

三星엔지니어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제공한 제조공정 기술을 토대로 기본 및 상세설계 기자재구매 시공등에 나서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프레온가스 代替物質 개발 오존층 파괴 전혀 없어

성충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레온가스 CFC의 대체물질인 HFC 134a(Hydro Fluoro Carbon 134a)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7월 하순 자동차에어컨, 냉장고냉매 등에 널리 이용되어 온 CFC 12와 물리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고 오존층 파괴가능성이 전혀없는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朴健裕, 李允容, 權英秀박사팀이 연구착수 3년만에 개발한 HFC 134a는 현재 실험실 합성단계를 거쳐 소규모 파이릿플랜트에서 생산중이며, 2년정도 후에는 상용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KIST측이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年間 약 10만t 정도가 쓰이고 있는 프레온가스는 「몬트리올의정서」에 95년 1월까지 86년도 사용량의 50% 수준으로 줄이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국이 대체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HFC 134a의 양산체제가 갖춰질 경우 우리나라는 CFC관련물질 수요(92년 약 5만6천t)의 40%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

남부권역 가스배관 94년내 착공 천연가스 본격공급 예정

오는 97년부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남부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배관망 건설공사가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된다.

한국가스공사는 97년 3월 완공 목표로 광주~창원간 2백67 km의 남부권 주배관건설사업을 내년 5월에 착공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부권 주배관 건설을 위해 올해안으로 공구를 제1공구(광주~승주간 90km, 공급지 4개소), 제2공구(승주~사천간 81km, 공급지 9개소), 제3공구(사천~창원간 89km, 공급지 4개소) 등 모두 3개 공구로 나눠 94년초에 시공업체를 선정기로 했다.

남부권 주배관건설공사는 오는 97년에 착공될 제3인수기지 건설계획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으로 구경 30인치의 대형관으로 매설되며, 총사업비는 5천9백24억원(92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남부권 주배관건설공사가 완료될 경우 오는 97년부터 순천, 여수, 진주, 마산 등 남부권 주요도시에 천연가스를 본격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0년대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남부권 제3인수기지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제3인수기지 후보지로서는 부산, 포항, 진해, 동광양, 여천, 거제등 10여곳이 물색에 올라있지만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영가스공사와 장기LNG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 朴淸夫사장은 지난 6월 하순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영가스공사(MLNG) Tan Sri Azizan 회장과 95년 이후 20년간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熱供給시설 종합竣工 49만3천호 지역난방 공급

강남 부천 고양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종합준공식이 지난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천지점에서 개최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열공급시설을 모두 완공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安東善 상공위원장, 李東勳 상공자원부차관 등 2백여명의 관계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5대 신도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90년 5월 분당열원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분당, 안양시설은 지난해 준공한데 이어 3년 3개월만에 5개지역 열원시설을 5천6백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모두 완공하였다.

5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은 보일러 1천4백톤(1백톤 10기, 2백톤 2기), 축열조 9기 24만4천톤, 열수송관 5백82km이며 강남열원시설은 강남, 서초, 수서등 9만4천, 분당 10만7천, 안양 10만 4천, 고양 12만, 부천 7만등 총 49만3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5대 신도시 지역난방 열원시설 준공으로 중앙지점 공급권역을 합쳐 53만7천호에 지역난방 열공급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올해 말까지는 21만3천호에 공급하게 되고 97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李東勳 상공자원부 차관은 장관 치사를 통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점차 에너지 시장기능에 맡겨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난방이 에너지절약, 환경개선에 중요한 난방시스템으로 수도권과 지방 택지개발지구에 우선공급, 2001년까지 1백80만호에 공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시설 종합준공식 광경〉

대한광업진흥공사

중국 서하활석광산 조사 중국측과 합작개발 추진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해외자원개발진출을 위한 기초조사로 중국 서하활석광산에 대한 광산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한중자원개발(주)에서 중국의 활석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지광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하광산이 유망광산으로 판단되어 지질, 개발 및 투자 현황조사를 실시, 국내 관련업체에 자료를 제공, 진출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중국의 서하활석광산은 중국 산둥성 서하현 이박사광지구에 위치하며 백색도 62.3~87.6 매장량 3천만톤인 광산으로 국내 한중자원개발(주)와 중국측이 50대 50으로 합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활석광은 해외의존도가 약 60% 정도이며 더구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향조정(7%→30%)되었던 긴급관세율이 금년 7월 1일부터 재조정(7%로 환원)됨에 따라 수입업체간의 과다경쟁등 유통질서의 혼란이 예상되어 개발수입을 통한 도입가격의 적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양질의 아연광체 발견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 금호광산에서 시추탐사를 실시한 결과 양질의 아연광체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에 발견된 아연광체는 금호광산에서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광체중의 하나로 과거 본 광체를 대상으로 물리탐사를 실시한 결과 하부발달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금년 6개공 1,600M의 시추탐광이 계획되어 현재 3개공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번 확인된 광체는 상부에서 기존 광체의 규모가 폭 1.5~4.0M의 품위 Zn5~10인 고품위이다.

더우기 기계설된 하1갱에서 약 240M의 크로스굴진을 실시하면 광체를 채광할 수 있어 생산하기에도 용이하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구역에 '93년 시추 6공 1,600M가 계획되어 연장부 및 심부를 탐광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매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 현판식 하루 7만5천톤 생활용수공급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는 8월 5일 李潤植 사장, 정인호 수도사업본부장, 이용래 노조부위원장, 구중희 소장 및 사무소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와 노동조합 지부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이 있기 전에 李潤植 사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뒤, 직원들과 일일일 악수를 나눔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또한, 현판식을 끝내고 소내에서 가진 점심식사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오로지 자기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하므로써 전직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규태, 탁순옥 부부 사우에게 사장의 제청으로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냈다.

앞으로 섬진강용수관리사무소는 기존의 다목적댐 관리와 함께 정주시, 김제시, 정읍군, 김제군, 부안군 등에 1일 7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무소 직원들은 “맑은 물, 풍부한 물 우리 손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이 지역 물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사무소로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효성중공업(주)

76만 5천V용 變壓器 국산화 세계 6번째 개발 성공

曉星重工業(株)는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76만 5천V용 변압기를 개발했다. 지난 90년말부터 개발에 나선 76만 5천V용 변압기를 국산화, 韓電이 全北 高敞에 건설중인 실증시험장안에 변압기 타워를 지난 9월 17일 준공하였다.

曉星重工業은 76만 5천V용 변압기 개발 초기단계에 해외 기술 도입을 검토했으나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서 3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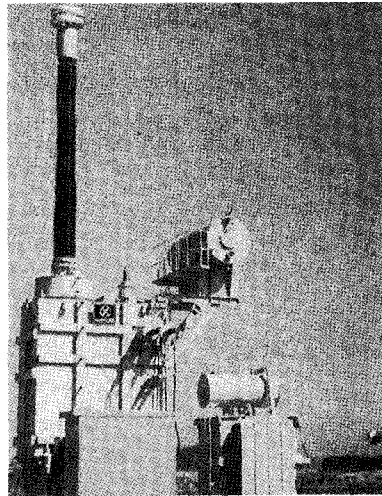
76만 5천V용 변압기 제작기술은 스웨덴 ABB社, 독일 지

멘스社, 일본 히타치社, 도시바社, 미국 웨스팅하우스社등 세계적으로 5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다.

한편 曉星重工業은 韓電이 장거리 송전전압을 34만 5천V에서 76만 5천V로 昇壓을 추진중이어서 韓電의 발주계획에 맞춰 양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변압기는 현재의 34만 5천V용보다 약 4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장거리의 송전전력손실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曉星重工業은 76만 5천V용 변압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발생부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특수절연구조 설계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 1천대 정도의 15만 4천V용 변압기와 약 3백대에 이르는 34만 5천V급 변압기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76만 5천V급 변압기를 국산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이 국산화한 76만 5천V용 변압기〉

경인에너지(주)

TPM 도입교육 실시

경인에너지 인천공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4차에 걸쳐 임원 및 부과장, 사무직 등 약 210명을 대상으로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도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TPM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과 공통된 마인드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TPM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후 각부 추진멤버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